

**예술가 생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노르웨이**

November 9, Aftenposten

문화중고부 장관(Trond Giske)은 현재 노르웨이에서 살고 있는 예술가들의 생활 상태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약 2억 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의 문화예술계에서도 사회적 문제인 '빈곤층' 이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환자, 노후층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리랜서 예술가들은 은퇴 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조사하는데 기금을 사용하고, 위원회를 이용하여 이 일을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 조사를 기초로 한 보고서를 몇 년 안에 국회에 제출하여 법적인 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도 전개할 예정이다.

**프린스턴박물관 전시 작품에 대한 논란**

November 12, Newsday

이탈리아 당국은 현재 프린스턴대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2,300년이 넘는 두 개의 그리스식 도자기 꽃병이 이탈리아에서 불법적으로 가져간 것인지에 조사 중이다. 이탈리아는 법적으로 보호 중인 고고학 유적지에서 도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100개 이상의 작품을 조사 중이며 프린스턴 박물관 역시 조사의 표적이 되고 있는 많은 문화 기관 중 한 곳이다. 이번 꽃병은 악탈당한 로마유물을 추적하던 중에 체포된 기마카모 메디치(Giacomo Medici)의 재판 중에 드러났다. 프린스턴 측은 이번인은 작품 소장 시 관련 기록을 전부 조사했으며 메디치라는 사람과는 직간접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가 이 꽃병들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임을 밝힌다면 박물관이 꽃병을 계속 소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빈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첫 여성 지휘자 탄생**

November 7, News

156년 전통의 빈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호주 출신의 지휘자 Simone Young이 첫 여성 지휘자가 되었다. 오케스트라 측은 정부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7년에 여성을 채용할 것을 권고 받은 후, 형식적으로 여성 음악가들에게 문을 열었지만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배제해왔다. 여성 하프스트인 Anna Lelkes가 임시 임명장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는 남성 하프스트의 부



족 때문이었고, TV로 방영된 신년콘서트에서는 그녀의 손가락만 보여야 했고, 프로그램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Simone Young의 임명은 남성 위주 정책이 점차 바뀌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음악계에서도 환영 받고 있다.

**예술과 과학의 통합을 목표로 한 연구기관 탄생**

November 5, the New York Times



배우이자 한 극단의 설립자인 Ricardo R Dominguez는 10월 28일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캠퍼스에 문을 연 나노과학, 슈퍼컴퓨터를 다루는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었다. Calit2(California 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라고 불리는 연구소에서 리카르도는 컴퓨터음악가, 게임디자이너, 나노기술 예술가 등과 함께 미래의 여러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할 예정이다. 연구소장인 스미씨는 '미래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 예술가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직관력은 미래를 먼저 받아들이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현재 산출된 거대한 정보의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예술가들과 과학자들은 과학적 정보를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아마존의 새로운 판매 서비스**

November 5, CBC



인터넷 판매점 아마존에서는 페이지 단위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획 중이다. 대부분 책의 페이지 당 가격은 몇 십 원 정도이며, 전문서적은 이보다 조금 더 비싸게 공급될 예정이다. 또

한 페이지 단위로 책을 구입한 독자에게는 약간의 비용만 더 지불하면 온라인상에서 시간의 구애 없이 책 전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더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부터 시작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서비스가 구독자, 출판관계자, 그리고 작가 모두에게 좋은 윈윈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아마존 경영자는 전했다.

**현 시점에서 미국에서 필요한 문화외교**

October 27, The New York Times

현재 미국정부는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평가되어지는 미국의 문화이미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면서 극단적인 반미국주의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공공을 대상으로 한 문화외교를 다시 채택할 시점인가에 대해 논의 중이다. 문화외교는 미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이용해 정치, 학문 분야 전문가들을 설득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반대하지만 이란 사람들도 <Baywatch>를 즐겨 볼 만큼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대중음악 등을 즐겁게 받아들인다. 이는 수익성 높은 사업일 뿐 아니라 부시행정부의 잘못된 점을 무마시키는 좋은 방안이기도 하다. 2차 세계대전 전, 미국 역시 나치의 선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외교를 이용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공산주의 방어 일환으로 예술 및 학문적 자유를 제공해왔다. 이번 문화외교에 대한 필요성은 9·11사태, 이라크 전쟁을 겪으면서 다시 제기되기 시작했다.

**케네디센터가 시도하는 뉴욕예술프로그램**

October 20, Washington Post

케네디센터는 'Arts Advantage/NYC' 라는 이름으로 뉴욕에서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타임 워너와 뉴욕시 문화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예술의 새로운 기법을 비주류 예술단체들, 소규모 오케스트라 등을 위해 제공하고, 무엇보다 뉴욕예술계에 새로운 이슈를 생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 예산은 뉴욕시 문화부에서 지원 할 예정이며, 우선 연간예산이 2억 5천에서 25억에 이르는 연극단체에서부터 미술관을 대상으로 심포지엄, 온라인 회의,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공동체에 기본을 둔 예술단체들이 새로운 창의적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며, 뉴욕예술계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타임 워너 부사장은 전했다.

이윤희 | 예술위원회 국제교류팀